

KBO 2021 정규시즌 종료까지 남은 기간 이들



삼성

KT

LG

‘경우의 수’ 복잡... 우승행방 안갯속

2021년 정규시즌 종료까지 딱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챔피언에 오를 영광의 주인공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아직도 3개팀이 우승 가능성을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27일에는 상위권 3개팀이 모두 경기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였지만 결과는 오히려 그 반대였다.

1위 삼성 라이온즈는 키움 히어로즈 원정 경기에서 3-8로 졌다. 위기 때마다 내야수비가 삐걱거리면서 실점을 쌓다가 힘 한 번 못 쓰고 물러났다.

같은 시간 NC 다이노스를 홈으로 불러들였던 2위 KT위즈도 경기가 풀리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KT는 난타전 끝에 6-9로 고개를 숙였다.

1~2위 삼성 KT 동반 패배, 3위 LG 승리로 더욱 혼전 두산 포스트시즌 안정권... 5·6·7위 물리고물려 몰라

3년 연속 10승을 바라보던 KT 선발 배제성은 3¼이닝 7피안타 3볼넷 6탈삼진 6실점으로 10패(9승)째를 당했다.

나란히 패배를 쌓은 삼성(75승9무58패)과 KT(74승8무58패)는 0.5경기차 1.2위를 유지했다. 삼성은 굳히기 기회를, KT는 선두 탈환을 목전에서 놓쳤다.

두 팀의 부진은 자연스레 3위 LG 트윈스(71승13패57패)의 기회로 이어졌다. LG는 이들 연속 한화 이글스를 누르고 꺼져가던 역전 우승의 불씨를 살렸다. 2위 KT와

1경기차, 총력전을 예고했던 지난주 6경기에서 3무3패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우승권에서 멀어진 듯했던 LG는 한화를 제물로 반등에 성공, 낮지만 뒤집기의 가능성을 이어갔다. 꼭 1위가 아니더라도 플레이오프 직행이 가능한 2위를 차지하는 것이 LG의 목표다. 잔여경기는 KT가 4로 가장 많다. LG는 3경기, 삼성은 2경기가 남았다.

KT는 이날 NC와 더블헤더를 갖는다. 삼성은 경기가 없다. KT가 2승을 챙기면 1위

의 주인이 바뀐다. 1승1무 시에는 삼성과 공동 1위가 된다. 2경기를 모두 패하면 KT는 LG의 한화전 결과에 따라 3위로 밀려날 수도 있다.

하루 사이 1~3위가 모두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이날 더블헤더는 우승 싸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가을야구 막차 탑승 싸움도 안갯속에 빠진 것은 마찬가지다. 4위 두산 베어스(69승8무64패)만 안정권으로 분류될 뿐 5위 SSG 랜더스(65승14무63패) 6위 키움 히어로즈(68승7무67패) 7위 NC(66승8무66패) 모두 가능성이 열려있다.

거센 추격이 시달리고 있는 SSG는 이날 두산전을 무조건 잡아야 한숨을 돌릴 수 있다. 스키아데일리/뉴스



MBC 자선 콘서트에 ‘잉글리시맨 인 뉴욕’ 스티빙, 노 개런티 참여

영국 출신 팝스타 ‘스티빙’(사진)이 MBC와 글로벌 NGO 월드비전이 공동 주최하는 자선 콘서트 ‘월드이즈 원 2021’에 출연한다. 스티빙은 30일 오후 8시 유튜브 MBC Kpop 채널을 통해 무대를 선보인다. 이 공연은 다음달 10일 자정 12시 MBC에서도 방영될 예정이다. 콘서트의 총연출을 맡은 최원석 MBC PD는 “이번 콘서트의 취지에 공감해주고 흔쾌히 출연을 결정해 준 스티빙에게

감사한다”며 “영국 런던에서 사전 녹화를 마쳤고 촬영 경비 외에 스티빙은 ‘노 개런티’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스티빙은 1978년 영국의 록밴드 ‘폴리스(Police)’의 베이스스트 겸 보컬로 데뷔했다. ‘에브리 브레스 유 테이크(Every breath you take)’ ‘잉글리시맨 인 뉴욕(Englishman in New York)’ ‘셰이프 오브 마이 하트(Shape of my heart)’ 등의 히트곡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스키아데일리/뉴스



용성우 첫 커피 손님... 류현경 “커피가 짜다”

카카오톡 ‘커피 한잔 할까요?’ ‘지역’역 특별출연해 웃음 선사

배우 류현경(사진)이 용성우 첫 커피 손님으로 등장했다.

28일 오후 5시 공개된 카카오톡 오리지널 ‘커피 한잔 할까요?’에 류현경이 대한민국 평범한 직장인 ‘지역’ 역으로 특별 출연해 강고비의 커피를 맛보는 첫 손님이 됐다.

류현경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직장인으로 리얼한 현실 생활 연기를 보여줬다.

한 손에는 출장 가방,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든 채 정신없이 통화를 하는 모습은 업무 오정에 짜증을 내는 등 열연을 펼쳐 공감과 웃음을 선사했다.

류현경과 초보 바리스타 용성우의 케미 역시 확인 할 수 있다. 지역은 출근 첫 날부터 야근을 자처한 강고비의 첫 손님이 된다. 늦은 밤 에스프레소를 마셔야겠다는 지역과 손님을 받아 본 적 없는 강고비 사이의 신경전과 초보 바리스타 강고비의 첫 커피를 맛본 지역의 반응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에 더해 지난밤 강고비의 어설픈 커피를 맛본 지역은 ‘2대 커피’를 다시 찾아와 강고비의 에스프레소 마신 테스트에 피드백을 주겠다고 나선다. 강고비의 커피를 맛본 지역은 “짜다” “타텃하다” 등 혹평을 전해 강고비에게 상처 아닌 상처를 남겼다.

‘커피 한잔 할까요?’는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 카카오톡에서 공개된다.

스키아데일리/뉴스



채널A ‘쇼윈도:여왕의 집’ 메인 포스터 공개

다음달 29일 첫 방송

‘쇼윈도:여왕의 집’ 메인 포스터(사진)가 공개됐다. 28일 채널A 새 월화드라마 ‘쇼윈도:여왕의 집’은 메인 포스터를 공개해 기대감을 높였다.

드라마를 이끌어 갈 4인의 관계성을 한눈에 보여주는 메인 포스터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궁금증을 자극한다.

포스터는 한선주(송윤아), 신명섭(이성재), 한정원(황찬성)의 화려한 가족사진과, 이를 바라보는 윤미라(전소민)를 담고 있다. 한선주, 신명섭, 한정원의 행복함 미소

와 이들을 바라보는 윤미라의 서늘한 표정이 대비를 자아낸다.

‘쇼윈도:여왕의 집’은 남편의 여자인 줄 모르고 불륜을 응원한 한 여자의 이야기를 그리는 미스터리 치정 멜로드라마다. 송윤아, 이성재, 전소민, 황찬성이 그릴 치명적인 사랑과 짜릿한 심리게임이 예비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은다. ‘쇼윈도:여왕의 집’은 11월 29일 월요일 밤 10시 30분 첫 방송된다. 스키아데일리/뉴스

일양발효 녹용홍삼보 2개월(70ml x 60포) : 79,000원/3개월(70ml x 90포) : 108,000원 (주)혜미리TV네트워크 상담문의 : 080-315-5000